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대통령상'

'섬유의 날 기념식' 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실용화 기술개발 통한 탄소섬유 국산화 등 인정받아... 김성룡 수석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운혁, 이하 탄소기술원)은 11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34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탄소섬유의 국산화 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탄소기술원의 김성룡 수석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산업용 라미오셀 필라멘트를 상용화시킨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아 기쁨을 더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27개 섬유패션 단체가 후원하는 섬유의 날 기념식은 섬유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섬유산업발전에 기여한 모범 섬유인을 선발·포상하는 행사다. 섬유패션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공적을 가진 유공자와 기관에게 상이 주어지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이자 탄소전문연구기관인 탄소기술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전주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만 국가연구개발과제로 23건(47억8,700만원)의 신규사업을 수주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11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34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 사업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 확산에 앞장섰다. 특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이후 탄소섬유 관련 국산화 국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국내 섬유산업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다공성 탄소, 전도성 탄소 등 탄소소재 6대 분야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확보에 집중해 70건의 특허를 등록·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나아가 탄소섬유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지원으로 해외 수출에 따른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다.

탄소기술원은 최근 대한민국 탄소산

업의 컨트롤러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됐다.

향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 내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하고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산업 중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업 간 연대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역경제와 국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국가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야호학교 인후공간' 내달 17일 개관

시민개관준비단 구성해 개관 행사 준비 돌입

전주시가 청소년 복합 활동공간으로 조성 중인 '야호학교 인후공간'이 다음 달 문을 연다.

시는 청소년과 시민 등이 포함된 '야호학교 인후공간 시민개관준비단' 12명을 꾸려 다음 달 17일 열릴 개관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야호학교 인후공간 개관식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민·관 협력형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야호학교 활동가, 중학교 교사, 여러 연령대의 청소년 등으로 시민개관준비단을 구성했다.

시민개관준비단은 개관 전까지 온·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행사 콘

셉트를 구상하고 주요 프로그램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최대한 특색 있는 개관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상 4층에 연면적 2365.63㎡(715평) 규모의 인후공간은 ▲1층 'Ready for 향해' 열린 모임공간 ▲2층 '창작의 향해' 동적인 공간 ▲3층 '꿈 속의 향해' 정적인 공간 ▲4층 '세계로 향해' 일상 탈출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윤상 기자

검찰, 연쇄 살인범 최진중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진중(31)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양형 부당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진중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시민 창업·창작 활동공간 '전주 메이커 빌리지' 개소

시·전주기전대, 개소식 가져... 3D프린터실·목공소·용접실·도색실·교육실 등 구축

전주시민들이 3D프린팅, 목공, 용접, 도색 등 다양한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전주시와 전주기전대학교(총장 조희천)는 11일 다가동 일원(완산구 전라감영로 13)에서 시민들을 위한 창업·창작 활동공간인 '전주 메이커 빌리지'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9000만원이 투입된 전주 메이커 빌리지는 연면적 535㎡(162평) 규모의 창업·창작 활동공간이다. 이곳에는 3D프린터실과 목공소, 용접실, 도색실, 기계실, 공구도서관, 공유오피스, 교육실 등이 구축됐다.

창업자들은 이 공간에서 최신 3D프린팅 장비 등을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창업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나 학생 등 누구나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와 전주기전대학교는 중소



전주시와 전주기전대학교는 11일 다가동 일원(완산구 전라감영로 13)에서 시민들을 위한 창업·창작 활동공간인 '전주 메이커 빌리지' 개소식을 가졌다.

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창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메이커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 공간을 구도심 활성화를 주도할 복합공간으로 삼아 인근 공공거리와 한국전통문화전당, 남부시장 청년몰을 연계하는 허브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주기전대학교 관계자는 "전주 메이커 빌리지"를 일반 시민, 학생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메이커 빌리지가 전주 창업·창작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건축문화상 '금상'

제21회 전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공공부문 수상

근대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전주를 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공로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이 제2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은 (주)다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완산공원에 건축 연면적 406.64㎡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영면한 추모공간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전시공간이 있으며, 옥상 전망대는 인근 전주한옥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녹두관은 인근 완산공원 꽃동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의 한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람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건축물 설계 시 투명하고 질 높은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점주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으로 전주다움을 되찾고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이 제2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